

# 서점인 재교육에 출판계 동참

출판협동조합 '서점학교' 상설기구로 신설... 실무능력 개발 중점 강의



지난 6월 13일 출판협동조합에서 열린 서점학교 현판식.

서점업계 개방과 서점의 전문화를 위해 서점업계와 출판계가 공동으로 서점인의 새로운 업무능력 개발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6월 13일 조합내에 서점인 양성을 위한 '서점학교'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지난 6월 13일 마포구 신수동 협동조합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서점학교는 서점인의 실무능력 개발은 물론, 이론적 학습을 통한 창조적 업무능력 향상과 아울러 서점 종사자들의 서비스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실시된다.

서점학교는 피교육자의 성격에 따라 초급(서점 취업 3년 이내 종사자), 중급(3년 이상), 매니저(점포 책임자급), 경영자 과정(운영자) 등 4개 과정으로 분류해 운영한다.

교육방식은 현재 적절한 교육 시설·공간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지방 순회교육과 통신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초급과정은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서울·경기·강원, 대전·충청 등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각각 1박2일씩 해당지역에서 집중적인 강의를 갖는다.

강의는 최근 문을 연 한국서점경영연구원(원장 손재완)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맡는다.

## 정진숙씨, 중앙도서관에 책 기증

을유문화사 정진숙 회장(한국출판금고 이사장)은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 2백여종 2만7천여권을 기증했다.

정진숙씨가 기증한 책은 모두 6천7백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은 정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문체부 세종문화상 시상계획 발표

문화체육부는 제13회 세종문화상 시상계획을 발표했다.

문화, 예술, 과학기술, 교육, 국방 등 5개분야에 걸쳐 각 분야의 발전과 학문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이 상은 시상일(10월 9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공적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수상자에 대한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6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문화체육부 어문과에서 받는다.

## 출첩 '생활속의 독서사진' 공모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는 국민독서생활의 진작을 위해 '생활속의 독서 사진'을 공모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독서하는 모습을 포착한 작품사진이 공모대상이며, 작품규격은 11×14인치 칼라 및 흑백사진이다.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출첩에서 접수받는다.



신식 군악대를 앞세운 구한말 고관의 행차 모습(1905년).

# 인쇄문화 사진 통해 본 옛 서울 정취

삼성출판박물관 '조선인쇄문화와 서울근대사진전' 열어

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종규)은 지난 9일 하오 3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삼성출판박물관 전시실에서 서울 정도 6백년을 기념하는 '조선인쇄문화와 서울근대사진전'을 영등포구청과 함께 개최했다.

삼성출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0여만점의 고서 및 고지도 가운데서 엄선한 200여점의 조선시대 인쇄물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출품된 인쇄물들이 모두 서울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정조 14년(1790)에 만든 목판본 지도로 4대문 안의 모습을 확대, 과장하여 그린 「漢陽圖」를 비롯해, 漢山居士 필사본으로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치적과 역사, 한양의 풍물 등을 1522구의 가사에 담은 「漢陽歌」(1844), 중국 명나라의 사신과 조선의 사대부들이 남산과 한강 등지를 유람하며 서로 시로써 화답한 내용들을 모은 「皇華集」(1476)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황화집」의 내용 속에는 특히, 성종조의 명신이

자 문장이었던 徐居正이 명나라 사신과 함께 한강 양화도에서 압구정까지 배로 유람하면서 한강과 서울의 풍경에 대해 시로써 화답한 내용도 실려 있어 5백여년전의 한·중 한시 경연대회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함께 이번 전시회에는 구한말의 서울 풍경과 서울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전해주는 희귀사진 120여점이 발굴돼 처음으로 일반관객들에 공개됐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1900년대를 전후해 미국인들이 한양에서 찍은 것들. 삼성박물관 측의 의뢰로 미국인 고서 수집가가 미국 현지에서 모은 개인 소장품들 위주로 구성된 이들 사진은 주막집 풍경, 장기 두는 양반님네들, 편자 박는 대장장이, 군악대를 앞세운 대감님 행차, 활터의 한량, 한강의 낚시꾼, 빨감나무를 지게에 짊어지던 머슴들 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한말 당시의 서울과 서울사람들을 오늘에 되살려 놓고 있다.

## 이런 출판사를 찾습니다

저는 87년 『소설문학』誌 제7회 1천만원고료 "장편소설문학상"으로 등단한 소설가이며 작품으로는, 87년 『토인부락』(소설문학사 판), 89년 『깜부기』(삼성출판사 판), 92년 『꿈꾸는 열쇠』(삼환기획 판), 94년 『아멘』탈고(현재 원고상태), 그외 몇 편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이중 92년 발표된 『꿈꾸는 열쇠』는 발간과 동시 음란저속 출판물로 판정받아 '판매금지' 중이며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재판 계류중임) 법원의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저는 앞으로도 제가 써야 할 소설만(음란소설이라 해도 할 수 없고) 쓸 예정입니다.

현재의 우리 도덕 기준이라든가 법의 대응, 독서풍토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제가 쓰는 소설의 초판 발행은 모두 일본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 상태가 어렵고 외국어를 못 하는 입장이어서 혼자 활동하기에는 사방에 어려움 뿐입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을 지원해 주고 제가 쓰는 모든 소설을 맡아 국내판 출간을 해 주실 출판사가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해 주세요. 자세한 말씀은 그때 나누지요.

조 동 수 TEL : 743-1129

• Bookdesign



표지 디자인부터  
본문 편집디자인까지  
출판과 관계된 모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예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4-14 프론트B/D 301호  
TEL : 518-7621~2 FAX : 518-7621

## 도서상품권



보낼수록 좋은선물  
받을수록 기쁜선물

한국도시보림(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295-15  
TEL: 852-4769/FAX: 852-4768  
1152-0111